

	보도자료 2025.6.2(월) 고상진 빛의혁명 시민본부 행정지원팀장 (010.3654.8525)
---	--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기자회견-

-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에 헌신했던 민주시민들로 구성된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은 2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 양춘승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공동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류태선 (사)긴급조치사람들 상임이사, 장정수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 성준후 빛의혁명 시민본부 상근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양 공동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유신독재의 암흑 속에서도 자유와 정의를 위해 거리에서 투쟁했던 선배동료 여러분의 지지선언은 왜 이재명인지에 대해 마침표를 찍어주신 것”이라고 환영했고,
 - 류태선 상임이사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윤석열 세력의 내란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분수령에 놓인 중대한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불의한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가장 소외된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의 편에 서왔으며, ‘공정한 나라’, ‘기회가 균등한 사회’, ‘단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의 비전은 우리가 오랜 세월 갈망해 온 민주주의의 이상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 참석한 이들은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다음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음모의 전모를 낱알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엄정

히 물어야 할 것

- 민주화 이후 드러난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 주권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부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 등이다.

□ 마지막으로 이들은 “소년노동자로서 삶의 벼랑 끝에서 시작해 억압받는 이들의 곁을 지켜온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라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 성준후 상근부분부장은 마무리 인사말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반드시 이뤄내 불법계엄에 의해 풍전등화에 놓였던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살피는 햇불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 최 문 518부상자회 대의원
- 류태선 (사)긴급조치사람들 상임이사
- 장정수 (전)한겨레신문 편집인
- 박현옥 광주전남긴급조치동지회 회장
- 김용진 출판인
- 권용덕 농업인

※ 서명자: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유영표 이사장
외 85명

고성휘 고영목 고은광순 공유상 곽한왕 권용덕 권형택 김거성 김동식
김명식 김선출 김성규 김용석 김용진 김재명 김종택 김진덕 김진태
김천우 김하범 김현수 김형기 노영민 류태선 문병수 문성훈 문승훈
박남수 박명근 박종렬 박일용 박태울 박현옥 박형중 박치관 배기호
변재용 부윤경 성낙철 성종대 신일섭 신희백 안길정 양길현 양기운
양민호 양춘승 엄주웅 연성만 오상석 오세범 우영제 유경선 유남선
유영표 윤담룡 이명준 이상경 이석규 이세천 이순범 이영송 이재명
이태현 이한용 이호웅 이철우 장만철 장석웅 장영달 장정수 전광표
전재주 정병문 정상시 정양언 정용화 정해일 조봉훈 조영식 최문 최열
최운 최인규 최형호 한승동 황선진
(총 86명)

[기자회견문]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의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윤석열 세력의 내란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분수령에 놓인 중대한 선거입니다.

유신독재의 암흑 속에서도 자유와 정의를 위해 거리에서 투쟁했던 우리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불의한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가장 소외된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의 편에 서왔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공정한 나라’, ‘기회가 균등한 사회’, ‘단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의 비전은 우리가 오랜 세월 갈망해온 민주주의의 이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다음의 시대적 과제를 실천해나가는 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첫째,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음모의 전모를 낱알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합니다.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시도는 민주주의를 일시에 붕괴시키려 한 반헌법적 범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모자는 구속되지 않고 여전히 공공연히 활보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민주화 이후 드러난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 주권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켜야 합니다.

셋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부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특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을 위한 ‘재심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정의로운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소년노동자로서 삶의 벼랑 끝에서 시작해 억압받는 이들의 곁을 지켜온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라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전심으로 지지
하며, 그와 함께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25년 6월 2일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일동



